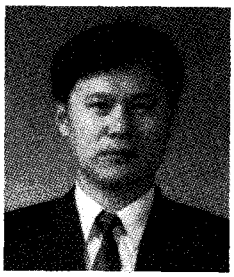
2000년 배합사료 결산

"아직도 구제역에 따른 여파는 우리 축산업계에 수출돈육의 재고누증이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내년도로 예고되어 있는 쇠고기 수입의 전면자유화가 몰고 올 파장이 우리 축산업계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배합사료 생산량은 현수준에서 정체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치 영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부장

배합사료 생산현황

지난 1998년 IMF 관리체제하에 큰폭으로 감소하였던 배합사료 생산량이 지난해에는 5.0% 증가하면서 점차 회복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금년도의 예기치 못했던 구제역 파동과 급작스런 경기위축으로 인해 횡보현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사료업계에서는 금년도의 배합사료 생산량을 지난해와 비슷한 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같은 성장이 이루어질 경우 배합사료 생산량은 IMF 직전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같은 예상은 연초까지만 해도 배합사료 생산량이 4% 이상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적중하는 듯이 보였으나, 3월 이후 예기치 못했던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고 소 입식이 크게 줄면서 배합사료 생산량 증가를 둔화시켰다.

그 결과 지난 10월까지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12,351천톤으로 지난해의 12,166천톤에 비해 1.5%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대가축인 비육우사료의 생산량은 10% 가까운 큰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비육우 사료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2001년부터 자유화되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양축농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대가축 사료에 특화되어 있는 농협의 생산 감소폭이 일반사료 회사보다 높았다.

또한 양계와 낙농사료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고, 양돈사료의 경우는 7.9% 증가하면서 돼지고기 수입중단으로 인해 돼지고기의 수출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가 증가했음을 보여주면서 최근의 양돈불황의 불가피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금년도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10월말 현재 1.5% 증가하면서 아직도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국내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이에 따른 축산물 소비감소와 축산물 가격하락 등이 예견되면서 배합사료 생산량의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대략 전년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무튼 금년도의 배합사료 산업을 결산해 볼 때 구제역이라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정부와 축산업계의 조기 수습노력에 따른 결실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구제역에 따른 여파는 우리 축산업계에 수출돈육의 재고누증이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과 기업퇴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전한 축산물 소비마저 감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축산경기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표 1〉 연도별 배합사료 생산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양 계	양 돈	낙 농	비 육	기 타	계
1980	1,805	704	393	104	–	3,006
1985	2,310	1,924	994	1,209	21	6,457
1990	2,923	3,551	1,790	1,667	144	10,426
1995	3,766	4,725	2,095	3,681	428	14,695
1996	3,849	4,994	2,168	4,137	635	15,783
1997	3,763	5,062	2,087	4,366	572	15,850
1998	3,423	4,918	1,888	3,605	374	14,153
1999	3,846	4,872	1,916	3,739	483	14,856
1999.10(A)	3,176	3,945	1,574	3,080	389	12,166
2000.10(B)	3,217	4,255	1,574	2,798	505	12,351
전년동기 대비(B/A)	101.3	107.9	99.9	90.9	129.7	101.5

더욱이 내년도로 예고되어 있는 쇠고기 수입의 전면자유화가 몰고올 파장이 우리 축산업계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배합사료 생산량은 현수준에서 정체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배합사료 가격 및 국제곡물가격 동향

금년도 배합사료 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 배합사료 가격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환율과 국제곡물가격이 안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환율의 경우 연초 1달러당 1,131원이었던 것이 4월에는 1,109원대까지 하락했고, 최근들어 다시 상승하여 1,140원대를 나타내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국제 사료곡물 가격도 품목에 따라 등락이 다소 엇갈리긴 하였으나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왔다. 우선 곡류원료 중 사료용 소맥, 수수, 호밀 등은 공급부족 및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거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옥수수가 주종을 이루었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는 미산옥수수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중국산 옥수수가 주로 수입되었으며 연초부터 안정적인 가격추세를 유지해 왔다. 최근들어 사료용 소맥의 계약도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수량은 많지 않은 편이며, 가격도 다소 높은 편이다.

이처럼 옥수수 가격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온데 반하여 대두박을 비롯한 식물성 박류가격은 연초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며 배합사료가격 안정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미산

〈표 2〉 대미달러 환율동향(매매기준율)

(단위 : 원/불)

년도별 / 월별	1997	1998	1999	2000
1	849.8	1,706.8	1,176.9	1,131.0
2	866.8	1,623.0	1,186.8	1,128.8
3	879.4	1,505.2	1,229.1	1,117.1
4	893.5	1,391.9	1,208.9	1,109.7
5	892.0	1,394.6	1,197.0	1,120.0
6	889.4	1,397.1	1,169.6	1,118.7
7	890.5	1,300.7	1,186.0	1,114.9
8	895.9	1,303.2	1,199.7	1,114.5
9	909.5	1,370.8	1,196.9	
10	921.8	1,336.7	1,206.3	
11	1,025.5	1,294.1	1,177.2	1,140.0
12	1,484.0	1,213.6	1,138.3	
평 균	951.1	1,398.8	1,189.4	

〈표 3〉 국제 사료곡물 가격동향

(단위 : US$/톤)

구 분		2000. 1	2000. 3	2000. 6	2000. 9	2000.11현재
옥수수	미 국	114	119	108	106	114
	중 국	105	108	103	103	103
사료용소맥 (캐나다)		–	–	–	109	145
대두박	미 국	212	228	232	246	238
	인 도	183	–	–	–	213
	브라질	197	200	205	207	212
채종박 (캐나다)		140	170	160	160	170

〈표 4〉 세계 사료곡물 수급동향

(USDA, 11월 9일 발표치)

구 분	곡물년도	생 산 량(백만톤)	재 고 비 율(%)
세계사료곡물	2000	859.0	13.7
	1999	875.7	16.6
미국사료곡물	2000	276.4	16.8
	1999	263.3	18.2
세계 옥수수	2000	588.3	14.7
	1999	605.1	15.2
미국 옥수수	2000	255.3	16.6
	1999	239.7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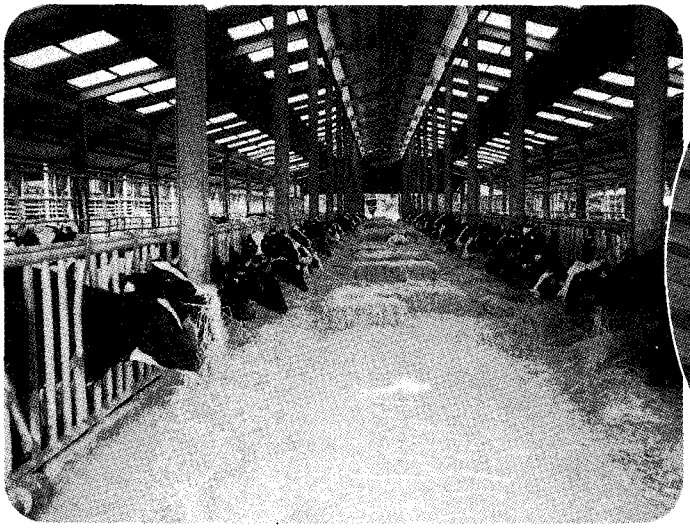
대두박의 경우 연초 212달러였던 것이 최근 240달러대까지 상승했으며, 인도산과 브라질산 대두박 가격도 큰폭으로 올랐다. 대두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여타 채종박 및 면실박 가격도 동반상승하여 연초 140달러였던 캐나다산 채종박 가격은 현재 17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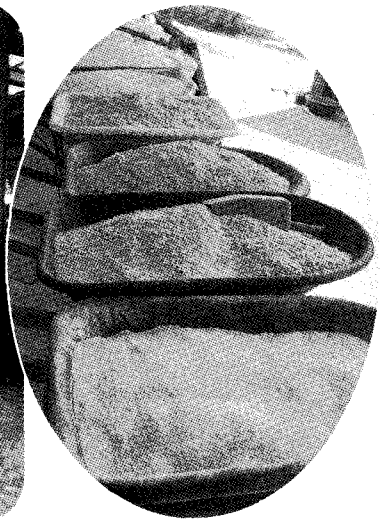
이와같이 금년도 사료원료 가격은 박류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옥수수의 가격이 안정되면서 배합사료의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사료곡물 재고수준이 감소하여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과 재고감소로 인해 내년이후 중국산 옥수수의 수출이 다소 불투명해지면서 이같은 안정적인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월9일 미국농무성(USDA)이 발표한 세계사료곡물 생산량은 8억5,900만톤으로 지난해의 8억7,570만톤에 비해 2%가량 감소하였고 재고비율도 16.6%에서 13.7%로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미국의 사료곡물 생산량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및 수출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재고율은 18.2%에서 16.8%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세계옥수수 생산량도 전년대비 2.8%가량 줄고 재고비율도 15.2%에서 14.7%로 낮아질 전망이며, 미국 역시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재고비율은 18.0%에서 16.6%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사료곡물 및 옥수수 수급이 악화되면서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강세기조를 띠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료곡물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배합





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전망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8~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부터 크게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금년 10월이후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는 높아질지 모르겠으나 실업률의 증가와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한 소비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금년들어 절반 가까이 폭락한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로 인해 중산층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그동안 회복국면을 보이던 축산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여건 속에서도 쇠고기 수입의 전면개방이란 악재까지 맞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축산·사료산업의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금년의 구제역 파동으로 수출이 중단되어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돈육의 재고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축산업에 부담으로 남게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축산물 소비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소비홍보와 함께 급격한 축산물 수입만 없다면 현재의 축산물과 배합사료 공급수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한 가장 당면한 과제는 축산물의 생산원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배합사료가격을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다. 향후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나갈 전망이나, 이같은 저곡가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제 곡물재고수준이 소폭 감소하면서 국제 곡물가격을 강세로 이끌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나라 사료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던 중국산 옥수수도 생산감소로 인해 지속적인 저가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사료업계와 축산업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의 세계곡물시장 변화에 따라 사료가격과 축산물 생산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료비용을 절감하여 우리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혀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개방과 경쟁의 파고속에서 축산업과 사료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물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필자연락처 : 02-581-5721〉